

우리 역사와 문화알림이,

조혜전 · 르포라이터

“여기 이 전광 안내판에 보이듯이 한국인의 조상은 B.C 10세기쯤부터 몽골 동북쪽에서 들어온 ‘통구스’ 족이라고 합니다. 두뇌가 뛰어난 이 통구스 족의 일부가 일본에 건너가서 세계문화유산의 하나인 호오류우지(法隆寺)를 철 못 하나 쓰지 않고 세웠습니다.”

“하회탈은 한국인의 얼굴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낸 가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전시물에서 지난날의 한국 문화가 받은 상처의 흔적까지 볼 수 있다면 한국의 역사와 민속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복궁내 민속박물관 전시실. 일본어 해설 자원봉사자인 남화식 님의 설명에 맞춰 일본 관광객의 관람 행렬이 이어진다.

오랜 세월동안 인류는 그들만의 독특한 문명을 만들어 왔다. 그것이 인간만이 갖고 있는 예술적 욕구의 발로이든, 자연의 제한성에 대한 생존 투쟁이든 간에 인간은 많은 족적을 남겼고 그 발자취를 통해 우리는 과거 조상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경복궁



박물관과 유적지. 그 곳에서 우리는 현재의 자리에서 과거의 흔적을 들여다볼 수 있고 옛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과 체취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박물관, 유적지의 탐방은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여주어 역사와 문화에 대한 바른 지식과 정보를 갖게 하고, 그럼으로써 자기 민족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타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이해를 도와주는 생생한 현장 교육의 장이 된다.

이러한 박물관이나 유적지에서 문화재를 감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미 알고 있는 기존 지식과 전시물의 안내문 혹은 음성 자동 안내기의 도움으로 문화재를 감상하는 방법과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감상하는 것이다. 전자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흥미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 내용이 단순하고 빈약하기 쉬워 수박 겉핥기식이 되는 경우가 많다. 후자의 경우가 전자보다 좀 더 꼼꼼하고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해설자원봉사자

박물관에 들어서면 안내 데스크에서 한국어를 비롯하여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언어로 전시물들을 설명해 주는 자원봉사자들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여 관광객들의 이해를 돕는 사람들로 대개 도슨트(docent)라고 통칭하는데 박물관의 모집 공고를 통해 선발된다. 지원에 연령 제한은 없으며 자원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해당 외국어의 능숙도와 경험 유무 등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선발 후 약 1개월간의 기본교육, 심화 교육, 전시장 현장 실기

민속박물관에서 도슨트로 활동하는 남화식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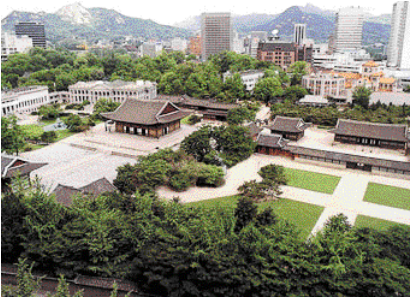
현재 서울을 비롯한 약 16개의 광역시·도에서 문화유산해설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 2003년 1기 문화유산해설사를 시작으로 현재 4기까지 약 130여 명이 선발되었다. 지방의 경우 서울에 비해 유적지가 많아서 활동하는 사람의 수도 많고 내용적으로도 좀 더 활성화되어 있다. 문화유산해설사는 각 지원 언어의 공인된 실력, 해외체류 유무, 전직 등이 고려되어 선발되는데 이는 다른 해설자원봉사자의 선발 기준과 유사하다. 이들은 선발 후 시민단체, 박물관, 대학 등에서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실무에 들어가게 된다.

시험을 거친 후 전시 현장에 투입된다. 현재 민속박물관에서 도슨트로 활동하시고 계시는 남화식(75)님은 “일본인에게 올바른 역사 지식을 주고 젊은이들에게 주체적으로 타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생이 다할 때까지 안내를 하고 싶습니다”라는 목적으로 봉사 활동에 임하고 있는데, 일흔이 넘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와 민속 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다.

그 외에도 (사)한국의 재발견의 우리 궁궐 지킴이, KYC(한국청년연합회)의 우리 궁궐 길라잡이 등도 우리 문화유산을 설명해 주는 귀한 자원봉사자들이다. 이들 역시 철저한 이론과 실무 교육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궁궐의 역사적 가치와 건축물로서의 아름다움 등을 안내하는 우리 역사와 문화알림이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또 보다 생생하고 밀도 있는 해설을 위해 활동 중에도 이들에게 틈틈이 역사와 문화 지식 심화를 위한 재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유산해설사, 우리 문화유산 알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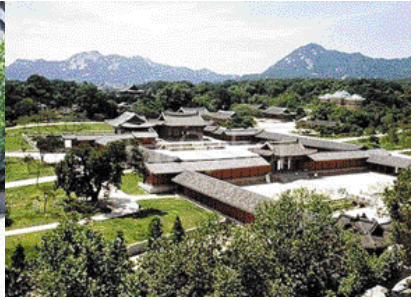
또 다른 해설자원봉사자로는 서울시가 2003년부터 선발한 문화유산해설사가 있다. 문화유산해설사는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등을 계기로 우리 문화유산을 내·외국인에게 정확히 전달하려는 취지로 2001년 문화관광부에 의해 공식으로 만들어졌으며 2005년에 문화관광해설사로 개칭되었다(하지만 서울시의 경우는 문화유산해설사로 고수하고 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약 16개의 광역시·도에서 문화유산해설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 2003년 1기 문화유산해설사를 시작으로 현재 4기까지 약 130여 명이 선발되었다. 지방의 경우 서울에 비해 유적지가 많아서 활동하는 사람의 수도 많고 내용적으로도 좀 더 활성화되어 있다. 문화유산해설사는 각 지원 언어의 공인된 실력, 해외체류 유무, 전직 등이 고려되어 선발되는데 이는 다른 해설자원봉사자의 선발 기준과 유사하다. 이들은 선발 후 시민단체, 박물관, 대학 등에서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실무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의 경우 문화유산해설사가 해설하는 코스는 총 다섯 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를 포함하여 창경



덕수궁



윤현궁



창덕궁

궁, 경복궁과 인사동, 북촌과 윤현궁, 덕수궁과 정동, 정계천 등이다. 서울시의 문화유산해설은 안내하는 장소가 한 곳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연계하여 진행한다는 점에서 다른 해설봉사와 다른 특징을 갖는다. 예를 들어 경복궁 제 2코스의 경우 경복궁만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경복궁을 거쳐 청와대 앞길, 인사동까지 해설을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 내·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속적인 자기 공부와 체력, 사명감은 필수 요건

요즘은 인터넷의 확산으로 일반인들도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유적지와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의 지적 수준은 예전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 그래서 해설사들은 관람객에게 무엇을 얼마나 제공해 주고 있는지에 대한 끝없는 물음과 함께 지속적인 자기 공부가 없으면 해설봉사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해설자원봉사자들은 더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쌓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

문화유산해설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요건으로 지적인 영역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체력과 사명감이다. 해설자원봉사는 한 번 해설할 때마다 약 두 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한 장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 소재지에 따라 이동을 하면서 안내를 해야 한다. 야외에서 해설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에는 특히 체력 소모가 많다. 그래서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지속적인 활동이 힘들다. 또 이 일은 순수한 자원봉사이므로 금전적인 면을 기대한다면 제대로,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 관람객 입장에서 볼 때는 봉사자 자체도 전시물이라는 자원봉사자의 전문적인 자세와 함께 젊은 사람보다 체력이 뒤처지는 노년층에서 해설봉사자들의 분포가 높은 것을 보면 그분들의 봉사정신, 사명감, 열정에 고개를 숙이게 된다.

곳곳에서 문화유산해설 자원봉사자들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의 역사와 문화 등의 관련 전문지식, 전달능력, 친절도 등에 대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창조해낸 문화유산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 단체에서

문화유산해설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요건으로 지적인 영역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체력과 사명감이다. 해설자원봉사는 한 번 해설할 때마다 약 두 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한 장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 소재지에 따라 이동을 하면서 안내를 해야 한다. 야외에서 해설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에는 특히 체력 소모가 많다. 또 이 일은 순수한 자원봉사이므로 금전적인 면을 기대한다면 제대로,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 관람객 입장에서 볼 때는 봉사자자체도 전시물이라는 자원봉사자의 전문적인 자세와 함께 젊은 사람보다 체력이 뒤처지는 노년층에서 해설봉사자들의 분포가 높은 것을 보면 그분들의 봉사정신, 사명감, 열정에 고개를 숙이게 된다.

육성되고 있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 해마다 여러 세계 대회들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있고, 한류의 열풍으로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외국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긴 세월동안 창조되고 전해져온 문화유산을 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보다 가깝게 이끌어내 주는 문화유산해설사는 내국인에게는 정확한 우리 문화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어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과 긍지를, 외국인에게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통해 참된 우리나라의 모습을 알려준다.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다양한 문화유산을 창조한 나라이며 오랜 세월 끊임없는 침략에도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지켜온 나라이다. 긴 세월동안 창조하고 보전해온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유산이 한낱 과거의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생명력을 얻게 하고 문화적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유산해설사의 활약이 앞으로도 더욱 기대된다. 🌈

종묘,
서울의 경우 문화유산해설사가 해설하는
코스는 총 다섯 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를 포함하여
창경궁, 경복궁과 인사동, 북촌과 운현궁,
덕수궁과 정동, 청계천 등이다. 서울시의
문화유산해설은 안내하는 장소가 한 곳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연계하여
진행한다는 점에서 다른 해설봉사와 다른
특징을 갖는다.



사진출처 :

(<http://home.kunwi.co.kr/palace/index.htm>)

“봉사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죠!”

현재 서울시 소속 문화유산해설사로 활동하는 황현숙 씨(49), 전직 중학교 미술 교사 출신으로 남편을 따라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일본에서 약 6년간 체류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3년 서울시에서 선발하는 1기 문화유산해설사 일본어 해설 부문에 지원하여 현재까지 약 5,000시간째 봉사하고 있다.

문화유산해설사로 활동하셨던 초기와 지금의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초기에는 문화유산해설사에 대한 홍보가 잘 되지 않아 거의 해설 문의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해설을 신청하게 하여 실습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청계천도 개방되고 인터넷의 활성화로 홍보도 잘 되어 해설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지금 일하시고 계신 곳 소개 좀 해주세요.

:종묘, 경복궁, 청계천, 덕수궁, 국립 중앙 박물관, 국립 민속 박물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등 서울시 지정 총 다섯 개 도보 관광 코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복궁의 경우 2003년에 문화유산해설사로 활동할 때부터 일본어 해설을 해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장 애정이 많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라는 직종에 대해 매력을 느끼시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요?

:배운 일본어를 현장에서 활용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과 좋아하는 역사를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의 역사를 일본인에게 제대로 정확하게 알리는 일에도 매력을 느낍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만나는 일본관광객의 경우 근현대사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직종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소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봉사에 대한 열정입니다. 사실 문화유산해설사는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시간, 체력 투자를 해야 하고 오히려 자기 돈을 쓰지요. 그래서 돈을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간혹 대접받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도 하시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어려운 일이 있었을 텐데요.

:해설을 신청하시고 늦게 오거나 아예 오시지 않는 관광객이 더러 있습니다. 또 너무 더워 숨이 턱 막히는 날이거나 추워서 입이 얼어 말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해설에 애를 먹습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관광객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2004년 서대문 형무소에서 일본 참의원 대표단 일본어 해설을 맡을 때였어요. 서대문 형무소는 과거 일본의 잔학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소이지요.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대로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지요. 그 때 그분들이 매우 심각하고 진지하게 들으셨어요.

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광복절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일본인에게 해설 문의가 들어와 일본어 통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한 아저씨가 이런 날 일본말을 왜 하냐고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결국 그 날은 끝까지 일본어 해설을 못했지요.

문화유산해설을 위해 따로 특별히 공부하시는 것이 있는지요?

:현재 일본문화원에서 일본어 고급 과정을 듣고 있어요. 또 일어 해설을 더 잘해내기 위해서 일본어뿐만 아니라 일본의 역사, 문화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방송 통신대 일본학과를 편입해 올해 졸업했어요. 또 각 박물관의 강좌, 해마다 실시되는 보수교육,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역사교육 등 보다 심도 있는 일본어 해설을 위해 필요한 것은 모두 찾아가 듣고 있습니다.